

“채용 혁명이 시작됐다”

-기업의 인재 채용 미래 모델 확산 국회 강연 콘서트-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김혜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2019년 1월 16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신학교와 스펙을 넘어선 기업의 인재 채용 미래 모델 확산 관련 국회 강연 콘서트’를 개최함.
- ▲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인재상과 미래 역량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기업이 추구하는 적격 인재를 발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필요.
- ▲ 청년 구직자들로부터 1000:1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 IT 혁신 기업 ‘마이다스 아이티’ 이형우 대표와 현 정부의 전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 광주 시장을 초대해 강연 및 대담 진행.
- ▲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넘어서 민간 기업 영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출신학교 차별 하지 않는 역량 중심 미래 채용 모델 확인 및 확산 가능성 점검.
- ▲ 실제로 마이다스 아이티 기업은 출신학교와 개인 스펙이 아닌, 미래 역량 중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IT 솔루션을 도입, 이 프로그램을 현재 500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활용 중. 출신학교 등을 묻지 않는 미래 채용 전망 매우 밝아.
- ▲ 이런 미래 인재 채용 관행의 획기적 변화가 초중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미칠 혁명적 변화를 내다보며 대비할 것들을 점검하고 관련 법률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김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019년 1월 16일, 마이다스 아이티 이형우 대표와 이용섭 광주시장을 모시고, ‘출신학교와 스펙을 넘어선 기업의 인재 채용 미래 모델 확산 국회 강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인재 채용은 학벌 등 출신학교나 과도한 개인 스펙을 요구하는 흐름이 아직도 도도하게 존재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 기관은 이를 넘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바, 출신학교와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만으로도 이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가 민간 기업에까지 아직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 기업은 아직도 수십년 전 ‘출신학교와 스펙’ 중심의 채용 문화를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사

실 우리 사회와 기업은 오랜 동안 아이들에게 학벌과 스펙을 갖춰야 유능한 인재라면서, 초중고 학교에 정답찾기 암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최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 국제 경쟁이 격화되고, 4차 산업, 인공 지능 시대로 산업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탁월한 인재, 미래 역량을 규정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각국은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혁명에 돌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도 최근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교육 선진국이 아이들에게 자유와 선택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효과를 거두자, 그것에 힌트를 얻어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에프터스쿨레’ 같은 정책을 도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대입시를 앞둔 고교 교육에서 멈추어 버리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퇴행적 흐름을 만들어 초등/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무력화시키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전통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난 20년간 아이들은 현실 교육방식에 순응해서 정답 찾기 암기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불평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구시대 인재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려면 톱톡 튀는 개성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지, 그런데 너에게는 그게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당황해 하며 항변할 것입니다. “아니, 출신학교와 스펙을 갖추라고 해서 좌우로 눈 돌리지 않고 열심히 입시를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합니까? 언제 당신들이 우리에게 톱톡 튀는 개성을 요구했습니까? 오히려 입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의 색깔 죽이고, 자유를 위한 개성을 누르고, 압박한 시험, 압박한 입시에서 승리해서 출신학교 스펙을 갖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 반문에 대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일관된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협업, 창의성, 소통 능력 등 미래 역량을 갖추라 할 것인지, 아니면 출신학교 배경을 위해 정답찾기 암기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잃지 말아야한다고 말하면 모두를 잃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는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나 개인 스펙 대신 미래 역량을 요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이 5개나 올라온 상태입니다. 법률안만이 아니라 출신학교와 스펙을 의존하지 않고 적합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기업의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청년 구직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IT 기업인 ‘마이다스 IT’의 새로운 채용 솔루션과 그것을 통한 채용 결과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기업 인사 채용 담당자들 상당수는 출신학교와 스펙은 지원자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적격자를 찾기 위한 교육정책의 측면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지원자들 중 어떻게 적격자를 찾느냐, 관련 서류가 없으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마이다스 아이티의 채용 사례는 이런 항변에 대한 대답입니다. IT의 경우, 출신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적격자 후보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미 600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보급한 상태에 있고, 해당 기관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재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95%가 넘는 매우 의미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출신학교와 개인 스펙을 통하지 않고도 기업이 적격자를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기업의 미래적 채용 방식의 도입으로 학교 교육의 대대적인 혁신을 견인할 가능성 또한 활짝 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상적인 것은 최근 ‘광주형 일자리 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경우입니다. 그는 현 정부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런 채용 문화의 제도적 확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 추진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급격히 변화될 것입니다. 글로벌 국제 경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산업 기반을 고려할 때, 새로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기업과 학교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인해 출신학교와 스펙, 고루한 5지 선다 객관식 평가 중심 교육체제는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알아야합니다. 오늘만 보고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20년 후 기업에 들어가 세상에 기여하며 경제적 독립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마땅한 부모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번 ‘채용 혁명이 시작됐다-기업 인재 채용의 미래 모델 확산 국회 강연 콘서트’는 우리 곁으로 다가온 그 변화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1. 8. 김해영 민주당 최고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행사명 : “채용 혁명이 시작됐다 - 기업 인재 채용 미래 모델 확산 국회 강연 콘서트”

■ 공동 개최 : 김해영 민주당 최고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 2019년 1월 16일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요 행사 내용(※발표자별 30분 미니 강연)

□(14:00) IT 솔루션을 통한 새로운 기업 채용 시스템 운영 - 마이다스아이티 사례 중심

-발표 : 마이다스아이티 이형우 회장

□(14:30) 새로운 기업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발표 : 이용섭 광주시장

□(15:00~16:30) 강연자와 패널 간 공동대담 (사회: 김해영 의원)

-공동 대담: 사회- 김해영 국회의원, 패널-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청중들과의 대화

■ 참여 방법 : 아래 배너를 눌러 참석 의향을 밝혀주시면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문의 : 홍민정 정책국장(02-797-4044, 내선 506)